

해방 50 년

1995

**연세 여성
문화예술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여성**

제8대 총학생회
제7대 이과대여학생회준비위
한학대여학생회 천문대기과학대

자매여 일어나라

깊고 깊은 통곡 속에서
우리 사랑 여성들을 본다

폭력과 강간과 비하의 소용돌이
절망의 바닥에서 담벼락에서
본다 그대를 여성들을

조국 어머니 만신창이 몸통아리
지리산 기슭 밭고랑에서 깃발처럼 살아나는
그대 여성들의 팔목을 본다

아가의 눈물자위 빨랫줄 너머에서
우리 사랑 여성들의 굴레를 본다
그러나 동지, 자매여 일어나라
초라한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을 지나

생명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리니
조국의 맨얼굴로 다시 다가서리니

현모양처의 사슬도 끊고
밥데기의 상장도 집어던지고
반쯤이의 세월도 무식처럼 녹이고
해방의 길 연대의 길로 나아가리니

이제 아니다 우린 결코 아니다
우리 사랑 자매여
여기는 마지막 식민지가 아니다

<연세여성문화예술제 일정>

날짜	시간	내용	장소
첫째날(5/23 화요일)	낮은 7시 오후 2시	영화 벤티트 핀	학생회관 앞 야외공연
둘째날(5/24 수요일)	낮은 7시 오후 2시	연극 여자는 사랑도 (극단 현장)	상대 공연인 강당
셋째날(5/25 목요일)	낮은 5시 오후 7시	영화 낮은 목소리	대강당
마지막날(5/26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두레방 9원화 여역자집	학생회관 3층 푸른세

첫째날 영화 '벤티트 핀'은 생존 인물 플란 데비의 삶을 다룬 것으로 본국 인도에서는 상영 금지될 당한,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킨 작품입니다.

둘째날 극단 현장의 연극 '일어서는 사람들'은 5.18 광주 민중 항쟁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셋째날 영화 '낮은 목소리'는 올해 4월 말 개봉되어 현재 극장가에서 상영 중인 작품입니다. 대강당에서 낮은 5시와 7시 2회 상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마지막날 두레방 후원 일일차집은 화학과 여외와 천문대기과학과 학생회의 주최로 학생회관 3층에 있는 푸른세에서 하루종일 열립니다. 두레방에서 만든 부제 없는 우리밀 빵과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공간 시간을 이용하여 선후배, 동기의 손을 잡고 오셔서 맛난 음식도 먹고 기지춘 여성의 삶과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문화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제 8 대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 이상아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삶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에 대해 우리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나의 일상에만 빠져서 힘들어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조금만 고개를 돌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한 번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친구부터 우리와 같은 사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지혜와 용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의 지혜와 용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힘들다는 것에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같은 시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사는 사람들처럼 힘든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다는 부정울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곳곳에선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농민, 여성 노동자, 여성 빈민, 정신대 할머니들부터 기지춘 여성들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농민, 노동자, 빈민이라는 이유로, 이 땅이 외세에 의해 침략당했다는 사실로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속에서 수백, 수천 마디의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자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들.

그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보고 그분들의 지혜와 용기를 함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성 문화 예술제라는 것을 준비하게 된 것은 보다 다양한 문화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기획단으로 참가하면서

제7대 이과대 여학생회 준비위원장 최은영

문화라는 단어는 참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과 그 정신적, 물질적 산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를 정의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문화가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 문화를 들어본다면, 인간의 능동적 역할을 통해 그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문화만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문학, 여성 미술, 여성 영화 등 문화 예술 활동 영역만 보더라도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용어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기원과 여성의 기원에 하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삶은 역사적으로 철저히 소외당해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사회 전체가 이것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 문화에 대해, 단순히 여성이 창작 주체가 되는 모든 활동으로 쉽게 테두리를 씌워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성 문화는 감각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 집단에 대항하기 위한 이기적이고 편협한 집단 문화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엄연한 생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온 여성들이 이제야 자신의 주장을 펴나가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거부감을 표하기도 하나, 이러한 오해는 여성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억압받아 제 목소리를 내지 못 했기에 상대적으로 그 활동이 미약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성 문화는 여성에게 부하되어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제까지의 남성 위주의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세계를 재해석하는 모든 활동으로, 창작 주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연세 여성 문화 예술제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각 계급 계층에서 나타나 는 여성 문제를 소재로 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매체를 통해, 여성 문제가 사회 각 영역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올바른 인간 이해와 폭넓은 현실 인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일 제 시대에는 정신대로, 1960-1970년대에는 공순이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는 매춘 여성으로 대표되는, 시대별로 가장 소외받은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이들의 문제를 공유하는 데에 기존의 작품으로는 물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소외당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본질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여성들의 삶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직업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소외받고 있지만 여기서는 각각 처한 현실에 따라 달라지는 소외의 양상과 그 소외의 광대한 범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당당했던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너무나 무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여성문화 예술제를 통해서 나로 인해, 사회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부족한 점 투성이라 미흡한 점이 많지만, 오랫동안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벤디트 린

벤디트 린은 '플란 데비' 라는 한 천민 인도 여성의 이야기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천민 계급의 여성인 그녀는 인간임을 선언하며 성해방과 계급 해방의 투사의 삶을 살아간다.

12살난 소녀는 고장난 자전거와 암소 한마리에 팔려 민며느리로 들어간다. 어린 그 소녀는 남편(?)에게 강간을 당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에 도망쳐 나온다. 성년이 된 플란 데비는 촌장의 아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자 도리어 화간으로 몰리어 마을에서 쫓겨난다. 오갈데 없게된 그녀는 산적 소굴로 들어가고, 산적의 무리 중 '비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며, 천민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간다. 그녀는 촌장의 아들의 사주를 받은 산적에 의해 비크람을 잃고, 사로잡혀 또다시 11명의 남성에 의해 강간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다시 자신의 산적 무리를 이끌면서, 천민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의적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한다.

마침내 인도 정부에서 풀란을 잡기 위해 산적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되고 그녀는 '8년 후 석방할 것, 천민에 대한 교육 실시, 어린 여성들의 매매 금지' 등의 조약을 걸고 투항하게 된다.

현재 플란은 40대가 넘었고, 자선사업가로 변신하여 정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너무 진부하게 보일 수도, 또는 너무 심하게 남성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여성이 억압 받는 것은 더이상 분노를 던져주는 사실이 아닐 지도 모른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영화는 우리들의 생각을 억압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우리들의 사고를 축소시킨다고 할 지리도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이고 바꾸어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도라는 나라, 아직 키스트 제도가 판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다.' 라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선택한 조건이 아닌 선택 위에 머무르는 조건 때문에 억압받고 삶의 조건을 한정 지을 수 밖에 없다.

이 영화를 보고 분노하자. 분노 속에서 진실을 찾고, 진실을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하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는 비단 문화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변혁 운동과 발을 맞추어 나가야하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민 인간 해방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노력없이 는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이 되고 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푸르른 5월, 연세 여성 문화 예술제를 통해 이 땅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아픔을 연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어서는 사람들

연출 : 김정희

작곡 : 정세현

출연 : 극단 <현장>

원작 소개 : 88년 광주 놀이패 <신명>의 대표작으로

전라도 마당극 특유의 신명과 한이 서린 마당극

80년 광주 사람 가슴 속에 숨쉬는 5.18이 선언한 피자극으로 생생히 남아있는 한, 지금 우리는 살아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일어서는 사람들' 인 것입니다. 학우들과 광주 항쟁의 정신을 나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동안 역사 속에서 철저히 소외당해온, 그러나 곳곳한 투쟁의 정신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작품 줄거리

역사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광주와 고평배팔이. 광주가 나와 신체의 한계로 인한 설움에 울다가 다시 자기의 한을 극복하는 속에서 고평배팔이라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남자를 만나 <오 일팔>이라는 아들을 낳고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한 오 일팔은 자신의 부모 형제와 이웃들의 삶의 타전을 지키기 위해 충을 든다. 최후의 날은 다가오고....

자식을 잃은 광주와 고평배팔이의 시련은 자신들의 신체에 대한 설움과 더불어 올바른 삶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변의 민중들은 새로운 힘과 단결로 다시 일어난다.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

낮은 목소리

서울의 구석진 곳, '나눔의 집'에 빗물이 떨어진다. 그 곳에는 6명의 정신대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 집안 곳곳에 떨어지는 이 비로부터 영화는 시작된다.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온 몸이 너무 아파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하면서 차라리 자살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박두리 할머니. 자신은 갈매기가 되어 월월 날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신다는 김순덕 할머니 등 6명의 할머니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어진다.

그리고 화면은 중국 호북성의 무한이라는 곳에 2차 세계 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일본 패망 이후 한국으로 귀향하지 못한 할머니들 3명의 증언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그런 생활이 너무나 부끄러워 고향에 가지 못한 채 병든 몸으로 아이가 있는 중국인과 결혼. 그 아이들을 키우며 지금까지 고향을 그리워 하시는 하군자 할머니. 일본군이 어린 나이에 끌려간 자신의 성기를 크게 하겠다며 칼로 잘라 버렸다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홍강림 할머니.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버린 백발의 또 한명의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슴 한편에 아스라한 아픔으로 다가오고, 어쩌다 부르는 그 시절의 가요가 끝까지 기억나지 않아 웅얼거리시는 모습은 한국에 사는 이들에게 부끄러움과 가슴 또 거움을 한번에 갖게 만들어 버린다.

매주 수요일.

이 날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차원의 수요 집회가 있는 날이다. 이 집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신대 할머니들인 것이다. 겨우 10여명이 모인 집회 한 번을 거르지 않으려고 이른 몸을 이끌고 참여하는 모습은 정신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말해 준다.

언제나 전쟁과 침략은 수많은 불행은 야기시켰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수난은 과거의 로마 제국의 약탈부터 최근의 보스니아 내전에서 여성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 행위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영화는 바로 이 수난의 역사 그 한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어둡고 서러운 역사를 이 영화는 결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 고난의 역사 저편에 존재하는 조그마한 희망을 부여잡기 위해 이 영화는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강제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낮지만 깊은 목소리를 화면 가득 담고 있다.

이 영화가 시나리오에 의한 기존의 것이 아닌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다소 길게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또한 정신대 할머니들을 역사의 인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함께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가지는 중요성과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 정신대 할머니의 말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 놈들이 또 언제 우리 딸들을 우리처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지. 우리는 어차피 다 산 목숨들이니까 말이지.”

<여성해방운동의 역사>

(1) 48년간 단독 정부 수립에서 70년대까지

48년 단독 정부 수립은, 미군정기에 일부 진행되었던 여성 해방 운동의 주류(좌익 단체 활동)를 단절시켰다. 정부 수립 전 좌익 여성 해방 운동 세력에는 '조선 부녀 총동맹'이 있었다. 조선 부녀 총동맹은 지부가 150여개, 병원이 80만에 달하였으며, 노동자, 농민, 도시민, 지식인이 일상 활동과 정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가장 고통을 당해 온 여성이 해방되기 이해서는 봉건 잔재를 완전히 소탕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민족 통일 전선의 강고한 일익(一翼)을 형성하는 한편, 여성 대중의 특수한 문제(공,사창(公,私娼)제도, 문맹, 일방적 정절 도덕을 강요하여 여성을 봉건 노예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사회 풍조, 임금 차별, 차별 교육제도)해결에 노력하였다. 일상 활동으로는 문맹 퇴치, 의식 계몽 활동, 국제 부인의 날 기념 행사, 쌀 요구 투쟁, 공사창 폐지 운동, 모스크바 3상 회의 지지 활동이 있었다.

공사창 폐지 요구는 유일하게 우익 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한 운동(1946.8.10 좌우익 합동 '부녀 단체 총결속 구제 연맹' 결성)이었다. 결국, 공창 제도는 1948년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사후 대책 부재로 오히려 사창 제도를 급증시켰다.

미소 공동 위원회(1946.3.2)를 전후로 좌익 탄압이 노골화되어 좌익 세력은 미군정과 직접 대결 상태로 들어갔다. 9월 총파업, 10월 인민 항쟁을 계기로 좌익 세력 급격히 약화되었고, 1947년, 조선 부녀 총동맹은 '남조선 민주 여성 동맹'으로 개칭하여 '북조선 여성 동맹'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단독 선거 저지를 위한 2.27 구국 투쟁 이후 남조선 민주 여성 동맹은 시들해지다가, 48 단독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일체의 조직적 활동을 보이지 않아 소멸되었다.

1948년 이후 새로이 등장한 여성 운동의 주류는 우익 여성으로 구성된 각종 단체들인데, 이들은 625동란과 전후 복구 사업에 동원되는 체계로 개편되었다. (일선 군인 위문 사업, 상이 군인 봉사 활동, 피난민, 파부, 고아 돌보기)

5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 여성 해방 운동은 일부 여류 명사를 중심으로, 여성 대중들의 요구와는 유리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실정이었다

60년대 산업화와 함께 새로운 여성 단체들이 등장하였지만 성격과 조직은 보수, 안이한 수준에 머물렀다. 주로, '여성적 교양'과 자질 향상, 회원의 상호 친목과 복리 증진, 봉사 활동, 반공, 방위 활동 등을 하였다.

3.4 공화국 시기에는 국가에서 장려한 '부녀 새마을 운동'이 성행하여 상호 협력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48년에서 70년대 초반까지 여성 운동은 조직원이 여성이었을 뿐, 여성 대중들의 이해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용 세력화 되어 지배 집단에 이용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변혁 운동 세력의 단절, 침체기임을 감안함시다.)

(2) 70년대

경제 성장의 높은 해외 의존도와 경제 침체를 노동 집약적 상품 수출의 증대라는 유일한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정책은, 종속 구조를 심화시키고 외국 자본에 특혜를 부여하여 노동자 중심의 민중 생존권을 억누르게 되었다.

정부는 수출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저임금에 기반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저극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으로 노동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입막음이 되었으나, 농촌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러, 이농을 재촉하고 농민을 임노동자로 편입시켜 새로운 사회 모순을 형성하였다.

1)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종교 지식인들의 인권 운동, 언론

자유화 운동, 학원 자주화 운동, 유신 반대, 민주 통일 청년 학생 운동, 노동 운동, 남녀 평등 주장 여성 해방 운동 등 사회 전면에 걸쳐 다양한 운동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도 성장 저임금 정책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보다 더욱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억압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A. 가족법 개정 운동

70년대 초반까지 유일한 여성 해방 운동은 '가족법 개정 운동'이었는데, 이것은 1953년 이후부터 계속 전개되었으나 중간중 중심의 활동이었고, 기층 여성 대중으로까지지는 운동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하였다.

B. 민주 노조 운동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 한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성차별적 착취의 문제를 노동 운동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함에 있다. 하지만, 70년대 한국 경제의 종속적 발전과 정치 경제 구조의 모순 심화는 사회 민주화 운동과 함께 기층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을 가속화시켰다. 이리하여 70년대 말,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써 이중 착취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 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성들은 여성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과 전반적인 사

회 구조 변혁 없이는 여성 해방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광범위한 여성 대중들의 자각과 참여가 변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식하게 된 것이다.

(2) 80년대

1) 노동 운동

변혁 지향적인 여성 단체들이 출현하여 여성 운동이 기층 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각 계층 여성 대중의 의식이 성장하였다. 80년대 이후 민족 민주 운동은 각 부문별로 투화, 전문화 되어 폭넓은 대중을 확보해 나가 전체 운동의 양적, 질적 성장에 기여한 바 크다.

85년 구로 연대 투쟁 시기부터 여성 노동 운동의 입지를 다졌고, 85년 톰보이(TOMBOY) 불매 운동은 성도 섬유에서 부당하게 폭행 해고당한 여성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각종 여성 단체와 연계하여 무려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져 여성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였다.

86년에는 생존권 대책 위원회가 결성되어 임금 인상과 생존권 투쟁을 벌였다.

이 시기(86년까지)의 문제점이라면 연대가 있어도 탄탄하지 못 하며 운동이 단기적 대책 활동 수준에 머무른 정도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87년!!!

기존의 생산력 운동이 사무직에도

확산되어 동일 직종의 남녀 차별적 임금 문제가 노조의 차원에서 대두되었다. 그 이전에는 남녀의 임금 차이가 노조의 입장과는 무관했으나, 드디어 여성 노동자의 요구가 노조의 입장에서 표출된 것은 여성 운동의 발전이라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 임금 상승은 거의 없었다.)

88년에는 직장내 폭력 추방 운동이 실행되었다.

2) 여성 농민 운동

여성 농민은 가사 노동과 육아, 농업 노동의 삼중고, 농촌 사회의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온존으로 도시 노동자보다 열악한 성차별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농촌 사회의 보수성으로 인해, 여성 자신이 당당한 농업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농업 보조자로 인식하는 풍조가 전체 농민 운동과 사회 운동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다.

1977년, 카톨릭 농민회(*참고3*) 여성부에서 카톨릭 농촌 여성회가 출범된 이래 농촌 여성 의식화를 목적으로 조직 활동에 힘쓰게 된다. 여기서는 농촌 여성 계몽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과 생활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약동합 관리, 작은 가축 기르기), 공동체적 삶(공동 모내기, 팔레터, 취사장)을 교육하였다.

80년대 이후에는 여성 농민을 둘러싸고 있는 수탈 구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권익 실현적 내용으로 전환한다. (농지세 시정 운동, 농협 민주화, 부당 경지 정리, 각종 잡부금

거부)

80년대 중반부터 여성 농민들이 농민으로서 당하는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는 삼양사 투쟁, 소몰이 싸움, 수세 거부 운동, 고추 생산비 보장 투쟁, 의료보험 거부 운동, 농협 민주화 투쟁 등이 있다. 특히 85년 소몰이 싸움에서는 여성 농민의 투쟁성을 과시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농민 운동 내에서 여성의 독자적인 요구나 제기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87, 88년에는 수세 고추 싸움,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농산물 제값 받기 투쟁으로 여성 농민 대중 조직화의 필요성 실감하고, 면, 군 단위 대중 조직 체계화에 힘쓴다. 목적 외식적인 여성 농민 운동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존의 조직으로는 앞서 말한 카톨릭 농민회 여성부 카톨릭 여성 농민회가 있고, 분회 형태로 여성 농민 조직화가 있다. 카톨릭 농민회는 88년 3월 여성 전문위를 여성 위원회로 승격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면서 여성 농민 운동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단체 중심의 여성 농민들이 조직적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지역 조직에는 거창 여성회와 현경면 여성 농민회가 있다.

거창 여성회는 88년 만들어졌다. 지역 특성상 농민들이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도시 지역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농촌 지역의 보수성으로 여성 농민들이 단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 가사, 육아, 농사의 3중고에 시달려 단체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거창 여성회는 일반 주부들과 읍 주변의

빈민 여성 여성 농민들과의 교류 및 연대 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해 무공해 식품 직거래 운동, 여성 문제에 대한 책이나 자료를 구비한 독서실 겸 찻집 운영, KBS 시청료 거부 운동, 부당 잡세 시정 운동 소비자 운동을 벌여 나갔다. 또, 회지 '일터' 발간으로 여성 문제의 홍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여농 운동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고추, 감자, 소, 마늘 등 해마다 농축산물 파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89년 고추 투쟁에서 운동 역량을 발휘한 여농이, 그 경험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여성 농민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무안군 현경면**에서 최초로 면 단위 여성 농민회가 창립된 데 이어 89년 군 단위 여성 농민회 설립이 무안군을 비롯해 강진, 해남, 나주 등 전남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조직은 전남 여성 농민회로 묶여졌다. 특히, 현경면 여성 농민회는 면 단위로는 최초의 여성 농민 조직인데다가 10명 미만의 회원으로 명목만 유지하는 타지역 농민 조직에 비해 7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규모가 크고, 아래로부터 조직된 여성 독자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농민 운동 사상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농촌 현실과 여성>

(1) 여성 농민

여성 농민은 1일 14에서 18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이제까지 행해진 여성 농민 운동은 여성 농민의 권리 보장, 의료, 탁아, 교육 환경(학교 급식제) 개선 등이 있다. (물론 각종 농업 수호 운동 및 정치적 활동도 병행되었다.)

여성 농민의 생계는 농사와 품앗이, 텃밭 경영, 가축과 부업으로 영위된다. 농가에서 전업 주부는 거의 볼 수 없으며 농사에 종사하는 여성 농민은 당연히 가사와 육아도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가의 일터가 집과 가까워서 가사 노동은 농업 노동에서 생기는 자투리 시간(흔히 남자들의 휴식 시간)에도 행해지고, 일터가 집과 먼 경우라도 트럭 혹은 오토바이 등의 수단으로 식사를 배달하게끔 되어 있다. (도시의 경우 대부분이 집과 직장이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어 적어도 직장에 가는 동안에는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며 가족의 사료도 함께 준비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빨래, 청소, 육아 및 자녀 돌봄 등 끊임없이 일에 시달리게 된다.

농촌의 봉건 의식으로 여성의 노동력은 매우 낮게 책정 혹은 무시되고, 따라서 경제 활동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여기에,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력을 실질적 노동력이 아니라 보조 작업임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농민으로서의 직업적 성취도가 낮고 자신의 직업이 당면한 위기, 문제 해결 위해 투쟁하고 조직적으로 나서지는 꺼리기도 한다.

여성 농민을 가정 주부로 규정하고 노동력을 이용 착취하는 사례로는, 농업 생산비 책정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것, 여성 농민 취업을 농가 주부 부업으로 평가하여 급료 삭감하는 것, 품앗이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남자보다 적은 임금 주는 것 등이 있다.

농촌에서는 대체로 토지, 재산 소유가 남편 앞으로 되어, 여성은 농협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고 작물의 종류나 재산 처분에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여성 농민 중 부농 혹은 경지 면적이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경제 활동 기회가 주어지고 가전 제품을 동원하여 가사를 처리하나, 가정 내에서는 발언권 거의 없을 때가 많다.

90년대 들어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는 도시의 각종 합락 소비 문화가 농촌에까지 깊이 침투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래방, 고급 술집, 피자집 등이 연달아 읍내에 생기고, 구멍 가게 대신 편의점(편의점은 농촌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장사가 잘된다고 한다.) 24 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오밤중에도 술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금방군 아저씨 말씀)까지 들어서기도 한다. 농촌의 경우 오

토바이는 향락 소비 문화의 충실한 매개물이 되곤 한다. 동네 어귀에 작은 찻집이 있는 것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찻집에서는 차를 시키면 차와 함께 오토바이로 여자를 실어나른다. 남성 노동력을 찾기에 빠앗기는 만큼 여성 농민은 노동 부담이 커지게 되고 살림이 너그러지 못할 경우 향락 생활에 남성이 탕진하는 비용으로 더욱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

성주 군의 경우 농한기에(사실 요새는 따로 농한기가 없다고 한다) 남성들이 관광을 핑계로 집을 뜨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 기간에도 여성 농민은 아이들과 노부모, 가족 돌보기 등으로 집에 있어야 함) 작물 판매 때문에 도시로 나갈 때에는 이유를 알리지 않고 며칠씩 늦게 돌아오곤 한다. 여성 농민과의 면담 결과 대부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짙었다.

(2) 농촌 여성과 택아

1987년 9월 전국 농촌 택아 대책 위원회에서는 상설 택아소(군 당 2개)와 농번기 택아소(현재 2862개이나 명목 뿐 부실), 비영리 민간 택아소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0 모성 보호의 해(임신,출산,육아)를 맞아, 가정,육아,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농민에 대해 행한 조사를 보면 76%가 아이 낳은지 3일, 25.2%가 7일 내에 일을 한다고 나타나 있다. 물론 아이들은 도처에 방치되어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정부 주도 국공립 택아소는 부모의

노동 시간과 맞지 않는다(오전 9시에 서 오후 5시까지 운영)

는 문제점이 있고, 그나마 전국 몇 개 대도시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을 뿐이다.

여성 농민은 다른 직종과는 달리 생리 휴가 산전 산후 휴가, 육아 휴직,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파다한 노동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의료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3) 소외된 농민 복지 (남녀 농민 모두에게)

* A 국면 연금 제도 *

6,70년대에는 특수직(職)의 연금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 학교 교원 연금이 있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은 '국민 연금'이 1988년부터 시행되어 500인 이상의 사업체 임금 노동자는 강제 가입으로 되어 있다.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자이므로 현재 사실상 가입자 수는 미미한 정도이다

연금 제도에서 제정의 사회화는 국가,자본가,근로자 간의 임금 재원의 분담 비율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민 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국고 부담금, 기금 운용 수익금 및 적립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제도 운용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피보험자와 사용자,의 기여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 연금의 재정 부담 방식의 특징

시 국가가 재정 중립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이 강하게 관철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근로자와 특히 지역 가입자(농민과 도시 자영업자)의 부담의 과중함이다.

피용자의 기여금은 의료 보험처럼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현재는 평균 보수 월액의 6%를 노사가 각각 2%,퇴직금 전환금을 2% 부담하고 있고, 1998부터는 3%씩 총 9%의 연금 기여금을 부담한다.임의 가입으로 되어 있는 지역 가입자(농민과 도시 자영업자)는 사용자나 국가의 부담 없이 기여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그러니까 현 시절) 자영자를 강제 가입시킬 때, 전액 본인 부담을 유지하되 일정 한도 내에서 국고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보건 사회부 제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중 보건 의료 사회 보장 부문 계획:1992-1998) 그러나, 여기서 국고 지원은 기여금 지원이 아닌 관리 운영비 지원에 그칠 공산(空算)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은 없게 되며, 이렇게 되면 완전한 수익자 부담 원칙 입각한 연금이 되어 사회보험적 성격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33%를 부담하는 근로자와의 불평등이 조장되고 제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지역 의료(醫保)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더욱이 이들은 기존 의료 보험료에 연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영자에 연금을 확대할 경우 기여금에 대한 (최소한 지역 의료

보험 수준의)국가 지원 요구는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 될 것이다.

B. 산업재해 보상 보전

전액 사용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가, 국고 부담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농민에게는 산재에 대한 법이 적용되지 않아 각종 사고, 재해를 당하고도 의보 외의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C.아동 보호

아동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즉 보호료와 보호 시설의 운영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가는 것이 보호 제정의 사회화 문제의 기본이다.보호료를 보면 현재는 생활 보호 대상자와 월 6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호료의 국가 부담의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대상은 전체 보호 아동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실제, 농가의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가 거의 없으므로 위의 대상 규정은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지역 사회 택아소 회 (우리들이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올바른 택아 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 대회1992))

즉 보호의 대부분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 기구에 맡겨져 있고 보호의 사회화는 극히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영유아 보호법에서는 :영유아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생활 보호 대상자와 저

소득층 (월소득 60만원 이하)에게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제 21조)고 하여 시장 원리에 입각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보육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도 종사자 인건비(보육 교사 및 급식 인력, 관리인 등)와 시설 신축비 명목으로 국가 공립 시설에만 지원되고 있고 보육 아동의 58%를 담당하고 있는(1991) 민간 보육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 지원이 없다. 이러한 일부 계층에 대한 선택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의 사회화와는 동떨어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농촌은 보육 혜택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 하겠다.

그 밖에

노인에게 각종 교통 시설과 공원 이용에 혜택을 주는 기존의 노인 복지 제도와 고령자 고용 촉진법 등은 생활의 터전이 농촌인 농민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업의 특성상 퇴직 수당이 없는 농촌 지역의 노인들에게 경로당 시설 지원 수준 이상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후 생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사고, 각종 재해를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90% 이상임을 감안할 때, 현재 장애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복지 정책(장애인 수용 시설 보조, 의무 채용제, 공공 기관 편의 시설) 등은 농촌에서 각종 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된 농민, 혹은 농촌에서 태어난 선천적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돌아

가지 않는 것이다.

* 정리 *

현재는 사회 복지 재정의 절대액이 부족하고, 그나마 국가나 자본의 부담보다는 노동자 즉 수혜자의 비용 부담이 높다

지역 가입자에게 국고 보조가 주어지는 의료 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실질 부담률은 70-80%로 나타난다. 복지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증립론, 수익자 부담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그 결과 열악한 복지 수준은 물론, 복지 혜택의 적용이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선택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현재 사회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거나 혹은 이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 복지 서비스의 주요 혜택은 생활 보호 대상자 등 한정된 계층에만 국한되는 실태를 노정하고 있다

농어민과 도시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에게 자영업 연금이 확대 실시된다 할지라도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기존의 의료보험처럼 의료 보험료에 추가하여 연금 기여금을 전액 납부하기 때문에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 참고 *

농부증(農夫症)

농민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 증

상으로, 농민의 건강 수준 파악과 건강 관리의 지표로 사용된다. 주요 증상은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손발이 저리다, 호흡 곤란, 야뇨증, 불면증, 현기증, 속 거북함 등이다. 1979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부증 유병(留病)률은 44.3%이라고 하며 마산 도림 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3년 이상 비닐 하우스 재배 경험에 있는 농부의 70% 이상이 농부증의 증세를 호소한다고 한다. 이 중 후군은 파로, 영양 부족, 감염, 기생충, 한랭 장애 등 직접적인 원인들이

축적된 데다가, 의료 자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농촌의 현실, 단순 피로로 오인하여 본인이 증상을 느끼고도 말하지 않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농부(農婦)증

농업을 담당하는 일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넘어감에 따라 가사, 육아, 노동을 전담한 농촌 여성들에게 수족 마비, 불면증, 냉증 등 여러가지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카롤리 농민회

농민 생존권 보장, 이 땅의 민주화, 농촌 사회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1966년 10월 창립되어 기층 농민에 뿌리를 깊이 내려 마을 단위의 분회, 군 단위 형의회, 도 단의 연합회를 가진 전국 규모의 카롤리 운동체이다. 기관지로 '농민의 소리' 및 각종 보고서, 자료집을 부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89년에는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간부들이 구속, 수배되기도 하였다.



< 아동복지 >

I. 여성노동자들의 수기

엄마가 위암에 걸려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교는 다니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겨우 마치고 집으로 와야 했고 매일 밥하고 집안살림을 다했어요. 아버지 몰래 돈 벌었다고 서울로 도망간 오빠가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집안은 말할 수 없이 궁색했어요. 남은 가족들이 방이 너무 추워 부엌에 모여 앉아 의논한 결과 각자 한사람씩 흠어져서 돈을 벌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여 살자고 한후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동안의 고생은 말로 다 못하겠어요. 지금은 나아졌어요. 가족도 같이 살고....

여름에 아무리 더위도 코카콜라 한 병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먹지 않습니다. 어느 재벌은 자기 집에 기르는 개에게 매일 쇠고기를 먹인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부잣집의 개만도 못한 것 일까요. 나는 기아 임금으로 우리들을 혹사 시키고 있는 놈들이 모조리 죽어 고 심을 정도로 믿습니다.

정말 노력하면 잘 살수 있을까, 언젠가는? 난 이미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두들 부지런히 사는데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 노력하면 잘 산다는데 살아나가는 요령이 없어서 그렇단 말인가? 오히려 자가용 줄리는 부자들을 보면 빈둥빈둥 노는데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놀아도 되기 때 문일까?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 3년, 딱 3년만 다니는 거다.
돈은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 타는대로
풍경 모어줬다 시집갈 때 요것저것 에
땀겨 좋은거 다 사가지고 가져지. 그런
나를 누가 구두쇠라고 해도 좋아. 오빠
말대로 여저란 그지 암전히 있다가 좋
은 남자 만나서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거야. 여자 나이는 스물셋이 좋은 때라
고 했잖다.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
며 책도 많이 읽어두자. 사람이 머리
속에 든 게 없고 교양이 없으면 시집
도 좋은 데 못간다고 하던데...

꽃꽃이를 배우고 싶어하는 실리의
이면에는 현실을 망각한 환상과 헛된
꿈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것을 조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혹 어떤 사람은
지금은 필요없지만 이답에 시집가서
세막기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이것 역
시도 환상과 헛된 꿈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태평스런 환경으로 시집갈 수
있는 주제가 못되지 않는가. 비슷한 환
경의 동물에게나 가계될 주제에....
주제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진정한 내 모습, 내가 바라
고 원하는 내 모습은 조장 언니의 눈
치를 살피며 지도원의 초침 바늘 앞에
서 떨떨대는 그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의 이 행복한 시간과 공간 이것이다.
다른 것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나만의 휴식과 꿈을 안겨주는 16시간을 위하여 8시간은 죽어주는 것이다. 8시간 동안은 나의 이성도 감정도, 필요하다면 오장육부까지도 이곳에 빼놓고 들어가면 그만이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면 그만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린 듯 자존심이 되살아 나기도 하는 것이다.

여대생이 연애를 하면서 키크코도 큰 남자와 판평을 끼고 영어를 중얼거리면서 거리를 활보해도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니 어찌니 하면서, 공단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연애를 하면 성문관이라고 한다. 대학생이 잘못된 것은 귀엽게 봐주고 노동자가 잘못된 것은 '천한 것들'이라고 욕을 한다.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우습게 만들고, 누구는 지식인이고 누구는 민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지식인은 고귀하고 민중은 천하다는 식의 층계를 만든 세상이 분하다. 홀리간 세월들, 열등 의식으로 초라하게 저들러 살아온 세월이 역을 한다.

가난한 이들에게에 남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나이인데도 객지에 나와 공장에서 돈벌이를 해야 하고, 또한 배우지 못하고 뺨없는 이들이기에 공장 생활을 해도 가장 밑바닥의 공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임금도 너무나 낮다. 이처럼 저임금, 혹사, 현장관리자들의 횡포에 시달려야만 하는 이들은 그보다도 <공물이>니 <공순이>니 하는 사회적인 차별대우와 밀시를 또한 참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누구든지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
 아는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지요, 우리
 가 노동조합을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예요, 가진 것 있는 기업주의 횡포
 에 대해 법에 의해서 우리의 권익을
 보장받자는 것이지요, 기업주에 대해선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면서 남성
 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짓밟혀도 좋다
 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순이 많아요, 여
 성의 권리나 근로자의 권리, 또한 사람
 으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우리는 철저
 히 찾아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평등하며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 의식과 권리 의식, 그리고 공동의 연대 의식을 깨달아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제는 남자보다 못하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전의 자기 부정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우리 역시 그들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시작했다.

철야노동, 기아임금등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었다. 현장 관리자들의 횡포는 여공들에게 구타까지 일삼고 있었으니 이들은 이 증산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일을 하는 실정이었다.

우리는 개처럼 두들겨 맞았다. 우리는 우리의 적이 도처에 깔려 있었음도 알았다. 가장 가슴 아픈 적이 있다면 그것은 동료 남자 노동자들인 것이다.

회사 간부는 간부니까 그렇다치고
누구보다 얹미운 건 남자 공원들이었

다. 처자식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몸이라지만 저릴수가 있을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모두들 포기한 채 묵묵히 지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게 해야한다. 아니 우선은 나 자신부터 그런 노예적인 사고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을 오히려 순종하는 여자의 미덕으로 착각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이런 일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한다. 앞장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조장이나 반장, 담임의 미용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다.

올빼미처럼 밤과 낮을 바꾸어 사는 삶과 18시간의 노동, 일요일조차 담놓고 쉴 수 없는 삶은 실제로 해본 사람이 아니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조오자로 태어난 삶이라면 이 모든 인간답지 않은 노동 조건들을 감수만 하고 살아야 애국하는 노동자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아니다. 노동자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장과 권리는 분명해야 하난. 하나의 국민으로서 행복해야 할 권리, 빼앗기고 있었던 나의 권리를 이제 되찾아야 한다.

술한 어려움과 억압 속에서도 사람으로서의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온 그들은 끝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위대한 증명을 내보인 것이다. 옛날의 그 모든 피동성을 떨쳐 버리고 근로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각이 고립무원의 외로운 투쟁을 승리로 장식한 것이다. 우리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라는 위대한 인간 선언을 행한 현장이었던 것이다.

여성 작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폭행의 또 다른 유형은 자본가 측에 의해 만들어지는 남성 구사대에 의한 여성 노동자들의 민주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난다. 노동 조합이나 제반 조직 활동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자본가 측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암암리에 유포 시킴으로써 여성과 남성 간의 차별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남성 노동자를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흔히 노조 결성 시도나 어용 노조 민주화를 위한 제반의 움직임을 방해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구사대 조직은 자본가 측의 상투적인 노동 운동 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남(男)대 남(男)의 무력 충돌은 상호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역 관계에 의해 자체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흔히 자행되는 구사대 폭력은 노사간의 투쟁에 성차별 의식과 자본가의 야만적 폭력성이 결합된 비열한 탄압책 등으로 이미 그 심각성이 폭로되어 왔다. 내가 있던 한 전자 주식회사에서도 여성들의 노조 민주화 움직임을 이끌어낸 구사대 남자 기사들을 구사대로 조직하여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남녀 노동자간의 전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와 관습들은 여성들의 의식과 더불어 행위전반에 걸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길들여

진 왜곡된 여성 의식과 그것을 직접, 간접으로 묶고 있는 제반 생활조건들의 불리함에 의해 남녀가 운동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동일하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할 수록 그 의식의 발전 정도에 있어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에 여성적으로 활동하던 여성노동자들이 나이가 들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가사 노동과 출산, 자녀 양육 등의 부담으로 인해 많은 경우 활동을 포기하거나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로 자신의 활동을 국한시킴으로써 많은 여성들의 인적 역량의 유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악순화의 계속은 여성 노동 운동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장애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역량 축적과 이를 통한 질적 비약의 계기를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II.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약 40%가 여성이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 노동자들은 구조적 저임금, 고용, 승진, 임금 등에서 각종 불평 등을 겪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노동 조건으로만 고용하려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능인 자녀 출산, 양육에 대해서는 봉건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이 부담을 개별 노동 가정으로 떠넘겨 버림으로써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20~24세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 했다가 25~29세로 넘

어감에 따라 경제 활동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혼 전에는 저임금으로 상품 생산 영역에 종사하다가 결혼 후에는 임신, 육아의 부담을 짊어지고 사회적 생산 노동에서 소외되어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력을 싹틔우려하던 자본가들은 임신, 육아의 시기가 되면 그 부담을 개별 가정에게 넘기기 위해 우리 사회의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여자의 본분은 집안일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여자를 생산 현장에서 집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고질적 저임금 정책으로 가계의 경제에 심한 압박을 받는 노동자 가정의 부인들은 애를 때려 놓을만 하면 다시 생산 노동으로 재진출한다.

(1) 미혼여성노동자들

1.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최저 임금액에 못미치는 노동자의 대다수가 저임금 업종의 여성 노동자들이다. 저임금 직종에의 취업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근무 연수에 따른 승진, 승급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정기적 임금 인상액이 낮은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편인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직업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저위 상충을 기대할 수 없는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에 고용되어 승진, 승급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여성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이전하는 것은 분명 구조적 모순의 반영이다. 직업 훈련

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저임금 업종으로 몰리고 근무 연수도 짧을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 속에서 그나마 근무 연수가 길수록 남녀 차별이 심해지는 여성 노동력의 차별 착취 구조는 이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다. 생계비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산업, 철야는 필수적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자들은 직종의 분리와 임금 체계의 간중 차별에 의해 남성의 48% 밖에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중의 최말단을 점하고 있는 것이다.

2. 모성파괴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는 여성 보건조항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 조항만이 아니라 그 기본 취지마저 무시되고 있다. 거의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는 봉제 업종의 경우 합성 섬유, 면지 등으로 인한 결핵, 축농증, 생리 불순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전자 업종의 경우 납땜으로 인한 납중독, 각종 화공 약품으로 인한 중독 현상이 폐지 후까지 불임증, 유산,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노동 조건이 많이 나아졌다고들 하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타이핑 약(잠안오는 약)과 피로 회복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리 휴가를 신청할 때 증거를 제출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도 하니 자녀 출산, 양육에 대한 전 사회적인 책임 의식과 가사 노동의 사회화 분위기

속에서 탁아소 등 사회적 시설이 마련되어 여성 노동자의 명실상부한 평생 노동권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 조항들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모성 보호를 또다른 여성 차별로 인식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 역시 자본가들의 교묘한 논리에 놀아나는 희생자들이 아닌가 한다.

3. 결혼, 임신, 퇴직

실제 결혼, 임신 퇴직제를 명시해 놓은 것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암묵적인 퇴사 종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봉건성을 이용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결혼이나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 아이를 낳고도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사회적 대책 없이는 일부를 제외하고 출산휴가, 육아 휴직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평생 노동권 확보만이 기혼과 미혼을 이용한 자본가의 여성 노동자 차별 착취를 극복하는 길이다.

4. 그 외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숙사, 담장집, 공장 주위의 향락적인 문화와 성폭행 위험 등으로 끊임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 기혼여성노동자들

1. 취업실태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취업 기회 제한과 가사 노동 등의 악조건으로 인해 공장 등에 정식 취직하지 않고 주변적인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부업이다. 부업은 자본이 기혼 여성의 노동력을 가장 말단에 서 착취하는 구조이다. 기혼 여성들의 노동력을 부업으로 이용할 경우 자본가들은 정식 고용에서 오는 각종 법적 규제나 상여금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하고 손쉽게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다.

보험이나 상품 판매 영업직의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나면 그만두어야 하는 실정이다. 기혼 여성을 사원으로 고용하기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기혼 여성의 주변 구매력으로 고도의 상을 이라 할 수 있다.

그외 파출부나 행사, 식당, 청소부 등으로 고용되는 경우와 소수 공장 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격적인 대우는 마찬가지이다.

2. 재취업의 문제

공단 내에서 기혼 여성을 뽑는 경우는 드물다. 대다수의 기혼 여성들은 영세 공장 등에서 노동 조건이 나쁘더라도 미혼여성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일에 대해서도 더 낮은 임금으로 모두를 꺼려하는 일을 기혼 여성들에게 시키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혼 여성들을 이용하여 노동 운동을 막으려고도 한다.

재취업시 직업 훈련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으며 미혼 때의 경력도 인정해 주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더욱 나쁜 노동환경

예를 교육비, 방세 등 돈 들어간 곳은 더 많고 남편의 부재, 실업, 질병으로 실제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기혼 여성들은 그러나 더욱 낮은 임금에 시달린다. 또 가사 노동까지 해야하는 이들에게 저임금은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한다.

이들에게 승진, 승급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4. 가정생활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보통의 일상 시간은 새벽 4~5시.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피로음보다도 미취학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정신적인 피로음은 더하다. 자본가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노동자들을 위해 탁아소, 공부방 등이 보장되고 8시간 노동으로도 생계비를 벌 수 있다면 가정 파괴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Ⅲ. 여성노동자 운동

여성 노동자 문제는 단지 여성노동자가 여성이라는 성격 존재로 당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을 둘러싼 착취의 문제이며 그 결과 여성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유지,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 문제는 바로 여성의 재생산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시장으로 나온 여성 노동자의 노동력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전체 노동자의 노동력을 평가절하시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제기와 해결은 여성이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노동자 전체의 노동력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먼저 여성노동자들이 일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의 억압에 항거한 투쟁과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변화된 여성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투쟁이 전파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확대가 넓고 깊어질수록 여성노동자들의 자주성은 회복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운동은 여성을 비롯한 노동자 전체의 노동가치 회복운동이자 그를 통한 인간 해방운동이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운동의 활성화와 발전은 그만큼 인간해방의 날을 앞당기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할 것이다.



< 기지촌 여성의 삶 >

I. 기지촌의 실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수량화한다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한대의 것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민족의 분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미군이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헤아린다면 그 자체는 오히려 또 하나의 고통일뿐이다.

더구나 주한 미군이 한반도의 남쪽에 무력으로 강점하면서 미치게 되는 총체적 영향에서 구체적 원인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의 미군기지 가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미군기지는 미군 기지의 구체적 실태다.

기지란 단순한 군대와 군사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민족과 지역의 지배와 통제를 위한 군사력의 실체로서 자국의 이해를 실현해내는 정치,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군 기지는 온갖 폭력과 성범죄의 온상이며 양국간의 불평등한 관계의 상징이다.

또한, 미군 기지의 대부분이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 도시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기지 주변은 건축 제한에 묶이는 지역 주민의 불이익, 핵무기의 배치, 주민 살상, AIDS 전염의 진원지이다.

미군기지는 교육과 질병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주한미군 부대 주변의 대표적 기지촌은 서울 중심부에 자리잡은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군산, 송정리, 대구, 송탄을 들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매매춘을 하는 여성의 수가 200 만을 넘는 지 이미 오래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가임 여성의 20 %가 매매춘을 한다고 보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기지촌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전혀 이들의 삶을 보장하려 하지 않는다.

기지촌에서 살고 있는 윤금이와 같은 여성들, 기지촌에서 하루의 생계를 위해 미군에게 몸을 파는 여성들은 왜 기지촌에 오게 되었을까?

첫번째, 강간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다. 기지촌 여성의 90%가 강간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순결을 잃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임신에 대한 공포, 결혼에 대한 거부감들이 이들 을 극도의 좌절감에 빠뜨리고 가출을 하여 직업 소개소를 찾게 된다. 우리 사회에 순결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여성들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정 환경이 열악하여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출하거나 가난이 싫어서 기지촌으로 오게 되는 경우이다.

셋째, 이혼녀, 미혼모의 경우다. 이런 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질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결혼 하기도 힘들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매춘을 하게된다.

넷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내 구타의 경우이다.

어떤 여성은 아버지와 오빠가 매일 같이 구타를 해고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가출을 했다.

그러나 마음편히 하룻밤을 보낼 곳이 그녀에게 없었다. 그렇다고 집에는 죽어도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담배락에 붙은 구인광고가 눈에 띄인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 온 것은 월수 200도, 초보자 환영도 아닌 침식제공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인신매매에 걸려 기지촌에 오게된 것이다.

하루밤도 어디서 먹고 잘 곳이없는 여성들, 그 여성들에게 우리사회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매매춘으로의 유혹은 절기만하다.

이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지촌으로 오게 되고 희망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그것또한 이들 앞에는 쉽지않은 일이다.

II. 기지촌의 여성

기지촌 여성들은 1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사회적 냉대와 질시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기지촌 여성들의 꿈은 결혼이다.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는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고통에 빠뜨린 한국이 싫고 한국인이 싫어서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금,토는 2시까지) 이들의 월급은 30내지 35만원이다. 다른 지역은 더 적게 주는 곳도 있다. 30만원을 지니고 한달을 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어쩔수 없이 매매춘을 하게 되고 미군을 하나 잡는게 최대의 꿈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군과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게 되면 우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걸으로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클럽에서 일하다가 미군을 만나 결혼을 한 여성들, 즉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생활을 살펴보자.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나 언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자주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도 한국에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문제가 증폭이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이혼당하는 일이 많다. 또한 아내를 술집등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버리기도 하고 매매춘을 강요하기도 한다. 미국의 산간 오지 술집에 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여성이라는 말도 있으니 국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간 여성들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80%이상이 이혼을 당한다고 한다.

미군이 한국에 나올때 국제 인신매매단에 속해 있다가 일부의 돈을 받고서 한국 여성을 결혼이라는 미끼로 데리고 나가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나머지 돈은 그때 받는다고 한다.

이혼을 당하고 한국에 나와 다시 기지촌으로 들어오게 되고 매매춘을 하게된다. 그러면서 미군을 만나 동거를 하기도 하고 매매춘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무런 연고자도 없이 혼자서 늙어간다. 밤새 길거리를 헤매 다니며 미군 하나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나이든 여성들,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당장 내일의 생계가 막막하기에 그들은 야한 옷차림으로 미군들에게 다가가 직접 흥정을 하여 매매춘을 한다.

이렇듯 여성들은 많은 탈출구를 찾으려 애쓰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며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하고 기지촌으로 다시 들어와 매매춘을 하면서 늙어가거나 병들어 죽어간다.

III. 기지촌 아이들, 내일의 세쌍둥이

기지촌에도 내일의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이 있다. 기지촌하면 흔히 사람들은 미군과 양공주를 떠올린다. 그리고 미군에 의한 윤금이 살해사건과 그밖의 많은 미군범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땅이면서 한국인의 인권은 찾아 볼 수없는 지역으로 기지촌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세쌍둥이 기지촌의 나쁜 환경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기지촌에는 혼혈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모두 한국사람의 아이들도 많다. 그들의 부모는 포주이거나 미군과 기지촌 매매춘 여성들을 상대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혼혈아이들이 처

한 상황과 그외의 기지촌 아이들의 상황은 서로 다른점도 있지만 기지촌의 문화가 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결코 다르지 않다.

첫째,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폭력적이며, 전쟁놀이들을 즐기는 다.

둘째, 미국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영향이다. 한국의 문화와 음식, 상품들을 저질이고 존스럼다 생각하고 당연히 미국의 그것들이 더 좋은 것이라 여기며, 부대안은 미국땅이라 생각한다. 또한 백인한테는 관대하면서 흑인들한테는 더 욕을 한다. 백인 혼혈아 보다는 흑인 혼혈아를 더 손가락질 하게 되고 무시하게 된다.

셋째, 왜곡된 성문화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이다. 매매춘을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커서 다시 매매춘 여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저질 비디오가 판을 치는 곳기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저질비디오를 보게되고 그것을 아무 거리낌없이 따라서 하는 아이들도 있다.

넷째, 미군에 의한 강간의 위험하에 있다. 길거리를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 미군들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이제서 익숙한 것이 아니다. 미군 아저씨가 접근을 해도 경계를 잘 하지 않기에 여자아이들의 경우 강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있다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다섯째, 가난과 미군을 상대하는 엄마 밑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아이들의 문제이다.

여섯째, 혼혈아이들은 학교에서 받는 상처가 크다. 아빠가 버리고 간 경우에

는 외국인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한국 학교에 가게 되는데 놀림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언어맞고 오는 일이 더 많아서 자주 결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또한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곱째, 혼혈아이들은 이중문화의 곁통 속에 빠져있다. 아빠와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과 많지만 그 가정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아빠가 있는 혼혈아이를 애제도 문제는 있다. 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엄마쪽의 문화가 철저히 무시되는 가정 환경 속에서 갖게 되는 갈등이다. 국제 결혼 중에서도 미군이 클럽에 매여있는 기지촌 매매춘 여성들의 빛을 갈아주고 데리고 나와 이루어지는 결혼에 보통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부부 관계를 종속관계로 만들며 남편의 언어나 문화를 그 가정에서 우월하고 지배적인 것으로 만든다. 또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어차피 영어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면 혼란만 준다는 생각에 한국의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영어나 미국 문화만이 우월하고 한국의 것은 열등하다는 생각을 뿌리깊게 갖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아빠만이 독재하고 있으며, 엄마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를 무시하게 되고, 서문 영어를 외워먹는 엄마와 대화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아

이의 태도에 의해 엄마는 가정에서 소외되고 더욱더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

IV. 기지촌 여성들의 작은 선택, 두레방

이렇듯 문제가 많은데도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던 기지촌에 두레방이 문을 연 것은 1986년이였다. 처음에는 영어공부로 여성들에게 다가갔으며, 초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성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점점 신뢰를 쌓아가면서 여성들이 관심을 보여 주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동두천과 의정부 두 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 아무런 부담없이 모여서 자기의 얘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곳, 사랑에 대한 애정과 신뢰감을 회복하며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곳이 바로 두레방이다.

오후 1시만 되면 밤상 앞에 동그렇게 둘러 앉아서 비록 많은 반찬은 아니지만 맛있게 나눠 먹으면서 가족과 같은 정을 느끼게 하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며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기지촌 여성들도 건강한 노동을 하면서 살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빵 프로그램, 실제로 기지촌 출신 여성이 일을 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 매매춘 여성들은 계속해서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뒤집고 이들도 주변의 여건만 형성이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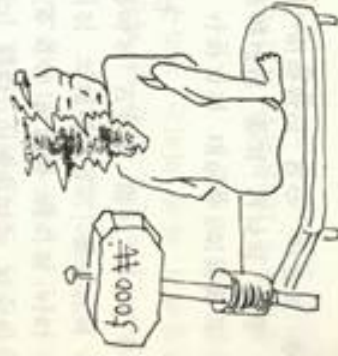
다면 충분히 전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지촌의 군사문화와 미국우월주의 문화, 저질 비디오 문화로부터 기지촌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혼혈아를 포함한 기지촌의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놀이방과 공부방은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안은 상담은 기지촌에서의 생활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의 아픔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영어교실, 한글교실을 통해, 여성들에게 배움의 목마름을 미흡하나마 채워 주고 있으며 예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회와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레방은 기지촌여성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레방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어느새 사랑을 믿는 법을 배우고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여 다른 일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두레방의 힘은 아주 미약하지만 여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다.



백순실 할머니의 황혼

언제인가 어떤 소설가에게 한 기지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소설가는 그 기지촌 여성에게 백순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후부터는 나도 강연을 다닐 때마다 그 여성을 백순실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기지촌 여성 공동체(이하 공동체)에는 아줌마라는 고유명사로 불리는 분이 계시다.

백순실 아줌마. 73살의 고령의 나이이지만 우리는 그녀를 그냥 아줌마라 부른다. 그녀는 실내에서도 항상 머플러를 쓰고 계신다. 행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식사를 준비하다가 머리카락 같은 티끌이라도 들어갈까 염려해서이다.

그녀는 머플러와 함께 늘 짙은 화장을 하고 계신다. 자신의 실제 나이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 그녀는 1923년생으로 일흔이 넘었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주름이 가득 배인 할머니이다.

기지촌에서는 고령의 나이가 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제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까닭에 그녀는 공동체에 오기 직전까지 '히빠리'(히빠리란 방거리에서 지나가는 미군을 붙잡아 매매춘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주로 아줌마처럼 클럽에서 일하기엔 너무 나이들어 버린 여성들이 하게 된다.)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허빠리 생활이라도 근근히 하기 위해서 나이와 외모를 속여야만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취한 미군이라도 불잡기 위해 짙은 화장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양산을 쓴채 뒷골목으로 나갔다. 다행히 나이 어린 미군이 한 명 잡혔다. 흥정은 잘되지 않았지만 그 래도 오늘날은 공치치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으며 긴밤을 보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화장이 지워진채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그 미군은 자신이 할머니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기겁을 하며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을 쳤다는 것이다.

그녀는 허빠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나이를 속인다. 항상 50세의 턱걸이로 나이를 말하지만 늘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평생해 왔던 몸 파는 일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이해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직업을 잃고 싶지 않아서이다. 혹여 자신의 실제 나이가 많으면 더이상 공동체에서 일을 시키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니고 있는 약간의 중국어, 일어, 영어실력과 해방직후 역사에 대한 해박함은 '정신대'라는 오욕의 삶으로 일그러졌던 젊은 날의 흔적임을 잘 알수 있다. 그녀는 그 이후의 삶 역시도 자신과는 무관하게 제국주의 군화발 아래서, 기지촌이라는 매매춘 시장에서 전전공공하며 일흔의 삶을 채워왔다.

공동체는 그런 그녀에게 믿기지 않

을 만큼의 '변화'를 가져다 준 곳이었

다.
세상사람들에게 속으며 선택하지 않은 삶을 강요당했고, 언제부터인가는 자신도 상스러운 육파 남을 속이는 일에 익숙해졌던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처음 공동체 일을 시작했을때 그녀는 자신이 차례놓은 밥상 앞에 앉지 않았다.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은 밥상에 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있어선 있을 수 없는 두려움이었는데도 모른다.

"아줌마, 이리 오셔서 같이 드세요."

열에서 보다 못한 동료실무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다. 그 모습을 본 한 여성이 이렇게 귀뜸해주는 것이었다.

"저 언니는 옛날에 포주한테 밥을 많이 먹는다고 배를 그렇게 많이 맞았대. 아마 그래서 그럴까야."

여기서 그런대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녀가 밥상 앞에 함께 앉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년. 그렇게 1년이 걸려서 밥상 앞에 앉기는 했지만 밥그릇은 여전히 바닥에 내려 놓은채 밥도 반찬도 아주 조금씩만 먹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제인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오징어 반찬만 열심히 사다 날라 예전의 피해의식으로 둘러쳐져 있는 아줌마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낯선 사람과의 대면을 회피했고, 계통을 못해내면 쫓겨 날까봐 입을 꼭 다문 채 일만하던 모습.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선뜻 우리를 믿기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제까지 쌓였던 불신의 벽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이리라. 가끔씩은 아직도 그런 피해의식으로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감당하기 벅찬 것이 바로 일의 성과이자 보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낯선 사람에 대한 기피증도, 그리고 밥상 앞에 처음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에게도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다. 많이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소복히 쌓인 밥 위로 또 한번 주걱질을 해대는 아줌마의 모습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자신감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담백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을 확인하게 해준다. 한 실무자는 아줌마의 변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어쩌면 아줌마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제외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몰라."

지금 그녀는 자신의 삶에 변화를 준 공동체의 활동과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와 타인으로부터의 예정을 확인하면서 공동체의 공동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양공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위안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미친년 그런 년 때문에 다른 년들까지 싸게 먹히는 거라구. 하여튼 그런 년들 땀에.."

통타임에 100불하는 요즘에 어떤 미친년이 20불을 받고 잠을 잤다며 한참

욕을 늘어 놓고 있었다.

"나야 뭐 이제 미군들하고는 상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줌마의 독백이었다. 아줌마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아, 느그들 내 소원이 뭐신 줄 한번 알아맞춰 봐라."

"응, 월급 오르는 거."

"피잇, 그까짓 월급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이가."

"그럼 뭘데요. 아줌마."

궁금증으로 대답을 재촉하는 우리를에게 이렇게 얘기 하신다.

"그제 뭐시냐면, 청춘이라 청춘. 뭐 청춘만 돌이킬 수 있다면 뭐시든지 할꺼다."

지금과 같은 삶으로 다시 살수 있는 청춘이라 하면 적어도 일본군에게 폭사당하고 미군에게 능욕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포주에게 매맞는 그런 일도 없는 청춘을 살아보고 싶은 그녀의 욕심을 그 누가 파하다 욕을 할 수 있을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언제인가 고향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그 곳에서 만난 고향의 농사 짓는 젊은이가 자신에게 신을 보여달라고 했다면 이야기를 늘어 놓으신다.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나?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어디 농사질라고 하냐 말이다."

"그건 그래요. 아줌마."

“그래도 난 아니야. 내 나이가 삼십만 되었어도, 아니 사십만 되었어도 난 농사꾼한테 시집 갔을 까다.”

“아줌마 농사일 힘들잖아요. 밭도 해야지, 예도 농아야지, 밭도 해야지 얼마나 지겨워요.”

“아줌마 봐라 그기 올때나 좋은데 느는 아직 어려서 몰라.”

그래 우리는 아직 어려서, 어쩌면 아줌마와 같은 삶을 겪어 보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른다.

변화된 삶.

하지만 고생만이 지루하게 연속되었던 삶의 그늘을 말끔히 걷어 낼수는 없는 것일까. 머리의 머플러와 짙은 화장이 역사의 짐을 킁켜히 덮고 계신 우리들 할머니의 모습을 어색하게 가리고 있다.

아줌마를 대할 때면 읽었던 책 한권이 떠오른다. 중국에서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2년 반이라는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신중하게 벌였던 ‘창녀개조사업’과 이 속에서 자신의 일터를 찾아 다시 건강한 인간의 삶을 찾게 되었던 중국의 수많은 창녀들의 모습 말이다. 매춘을 근절시키기 위해 매춘여성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갑자기 매춘지역을 없애므로써 매춘여성의 생계를 위협한다거나, 매춘여성들에 대한 도덕 교화작업으로만 마무리 짓지 않고 오랜 시간의 준비작업 후 그녀들에게 새로운 일터,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출구를 열어준 중국 정부의 판단은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 일구어낸 백순실 할머니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의 성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책 속에서 내 허리를 떠 나지 않던 여인이 한명있다.

그 여인은 정신대로 착출되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가 중국의 다른 창녀들과 함께 수용되어 개조과정의 한 결실인 투표권 행사에서 자신에게만 투표권을 주지 않느냐며 울부짖었다. 지금 그 여인은 무엇을 하며 그 한 젊은 생을 마감하고 있을까. 어쩌면 자신에게 들리워진 역사를 책망하기 보다는 저물어가는 자신의 생애 대한 아쉬움을 가슴에 가득 안은 채 자본주의에 물들어가가는 중국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전 자신의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는 날에 그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팔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꽃을 선사받고는 너무도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줌마, 아줌마가 좋아하시는 꽃에 둘러쌓여 있으니 행복하시죠?”

“내가 살면서 이런 날도 있어 안되겠나?”

우리들의 물음에 노여움 없는 항변을 하시는 아줌마의 모습을 보는 저마다의 가슴에는 73세라는 노년에 갖게 되는 아줌마의 불안해 하는 모습이 겹쳐지며 왠지모를 서늘함이 밀려든다.

※기획단 희망동이의 편집 후기

<하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자기소개

i. 취미나 습관은?

ii. 기획단원이 된 사연

iii. 이번 일을 하면서 얻고 싶은 것은?

iv. 하고 싶은 말

v. 누구?

1. 목소리가 매우(?) 크다. 승차지에서 내송, 그러나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2. 총어에 있으니까!

3.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싶고 그 많잖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연세 안에 총어의 바쁜 문제 의식이 전해지기를....

4. 여러분, 우리 고된 많이 하고 많이 얘기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자신이 발전되고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얻어갑니다. 참, 시간 좀 잘 지켜라. 시간은 gold가 아니라 cash!!
간호학과 4학년 이상아

1. 논설 위에 수수깡 놓이기.

2. 기학을 여태 못가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간접 경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 다양한 만남. 생각과 경험의 공유. 평~한 감동.

4.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화려한 걸치레보다 내심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5. 천문대기학과 4학년 최은영

1. 숨 먹으면 뱉고 다운날 학교에 안나온다.

2. 이라대 여학에서

3. 많은 경험과 대학. 배운

4. 장해 봅시다!!!

5. 천문대기학과 3학년 강승지

1. 분수타 수다

2. 이라대 여학 통해서

3. 경험과 사람들의 만남. 배운 의 기쁨

4. 여러 학우들의 생각 공유, 새로운 시도, 어려워도 승퍼도 함께!

5. 천문대기학과 3학년 노유정

4. 이날 못가게 함. 나도 잘하는 거라고(생각안나지만), 할 말도 많은데... 우리 fighting!!!

5. 천문대기학과 2학년 임경복

1. 숨먹으면 자거나 침묵. 연구이 나 이혼은 잘 잊어먹지만. 人 특히 후배는 이버한다.

2. 하고자 하던 일일치집 내용과

주제가 같고 혼자보다는 훨씬 내용이 깊어지고 새로운 사실도 접하게 될 것 같아서...

3..학원과 여회에서. 두레방이라 사람들에 대한 고면. 단결된 자 리마련라 나 자신도 적극적이고 비 판적 또 긍정. 자신감있게 살아가 기를 바라며...

4.성공적으로 끝내자! 근양도 잘 하고 관심도 많이. 자보학도?

5.학원과 3학년 이행진

1.능 종년 뜻한 모습

2.관심있는 분야이고 혼자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좀더 배울 수 있는 기회

3.원가 했다는 보람. 깊은 생각
4.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
속 홍보. 그리고 공감할 수 있었으
면...

5..학원과 2학년 장성연

1.우리가 모든 학우는 내꺼(?)
보보라 춤, 수다, 수영, 바느질
2.두레방 하후찾집하려고
3.박서 책임지고 싶다. 축축.
4.우리 뭐 하지? 재미있게 해요.
5.천문대기러학라 3학년 어선경

<동. 자호집 바깥길라 본 행사들
알론 지균>
생각보다 일이 잘 안되는 군...

그래도 힘을 내어서 앓. 많이 오서
은.. 그동안 워드 속도의 랑목항만
한 성장어....

-유정-

모두들 나한테로 힘들고 바쁘구
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두레방을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선경-

끝까지 최선을 ...

-상아-

시원인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
끝날 때까지 잘 할게요.

-경숙-

두레방 하후찾집도 열심히, 근양
공부도 열심히!!!

-성현-

힘들다. 모두들 그래도 서로 기
대며 잘 합니다.

-형진-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마지막날
땀점일까지 열심히.

-은영-

난 예송라는 거리가 먼 사람인
데... 끝까지 잘해보고 싶다.-송지

-